매일경제

삼성 기흥공장 비메모리로 전환

탕정 LCD라인 일부 OLED로…부품라인 대수술

기사입력 2012.05.01 18:38:35 | 최종수정 2012.05.02 11:54:22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삼성전자가 기흥 반도체 사업장과 미국 오스틴 공장을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전용 생산라인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로 분사된 대형 LCD 생산라인의 일부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1일 전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D램을 주로 생산하는 기흥 8라인을 비메모리 생산라인으로 전환하고, 미국 오스틴 공장의 낸드플래시 설비를 비메모리 생산라인으로 돌리는 작업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를 생산했던 기흥 9라인과 14라인을 비메모리 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작년 말 단행했으며 9라인 옆에 있는 8라인도 비메모리 생산 설비로 올해 하반기 중 교체할 것으로 파악됐다.

기흥 8·9라인은 200㎜ 웨이퍼를 투입하던 메모리 생산라인이지만 이를 비메모리 라인으로 바꾸면서 300㎜ 웨이퍼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흥 8라인의 인력 재배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메모리 전용 생산시설로 쓰이던 8·9·14라인의 전환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비메모리 전용 생산단지로 완전 탈바꿈하게 된다.

반면 10·11·12·13·15·16라인이 위치한 화성사업장은 메모리 생산을 전담하고 있다.

김명호 삼성전자 상무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라인 일부를 추가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국내외에 있는 메모리 라인 모두가 전환 검토 대

상"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996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설립한 반도체 공장의 낸드플래시 라인을 비메모리 시설로 연내에 전환할 계획이다. 오스틴 공장은 모바일용 시스템 반도체를 애플 등에 공급하고 있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라인을 서둘러 확충하는 것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급증하는 모바일 기기용 비메모리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디지털 제품의 `두뇌`에 해당하는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주문이 삼성에 밀려들고 있으며 물체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카메라 이미지센서, LCD 동작을 제어하는 디스플레이용 구동칩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영찬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삼성 D램과 낸드플래시의 글로벌 점유율이 40%를 넘나들면서 메모리 성장성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며 "중국 시안에 짓는 낸드플래시 공장의 생산량을 감안해 기존 메모리 라인을 정리하려는 포석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80%가 넘는 비메모리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명실상부한 `반도체 톱`으로 올라서기 위해 비메모리 역량을 강화하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올해 15조원의 반도체 투자를 확정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에 8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사상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앞지르게 된 게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충남 탕정에 위치한 8세대 대형 LCD 라인의 일부를 TV용 OLED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CD사업부를 넘겨받은 삼성디스플레이와 OLED 사업을 전담하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가 7월 통합하는 만큼 OLED 라인을 확충하기 위한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 LCD사업부는 TV용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를 SMD에 접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OLED TV 패널을 양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인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2007 매경닷컴(주) All Rights Reserved.